

조합촉매 시장 성장 유망하다!

UOP, 자회사 Torial 통해 참여 ... 신생기업들도 참여 활발

조합촉매 생산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.

UOP는 PI-242 촉매 개발 프로그램에서 Combi-Chem(조합화학) 기술을 이용해 500개 이상의 촉매 포물레이션을 단 5주만에 스크리닝할 수 있었다. UOP는 2002년 자회사 Torial Technologies를 통해 조합촉매 사업에 착수했다.

신생기업들도 조합촉매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.

네덜란드의 Avantium Technologies는 최근 Chiral Quest와 Avantium이 Chiral Quest의 키랄-리간드 촉매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제휴협정을 체결했다.

2000년 2월 유럽에 설립된 Avantium은 Novozymes, Eastman Chemicals, Shell, Pfizer, Glaxo-SmithKline 및 AstraZeneca 등 수많은 화학 및 제약기업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HTE AG도 조합촉매를 전문화하고 있는 신생 화학기업 가운데 하나이다. 1999년 설립된 HTE AG는 2003년 BASF Future Business GmbH의 100% 자회사인 BASF Venture Capital GmbH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조합촉매 사업에 투자해 왔다.

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분리설립된 스위스 Thales Technologies는 1999년 활성 촉매 중간체의 스크리닝 도구로 ESI-MSn(Electrospray-Ioniz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)을 이용하고 있다.

메이저들도 조합촉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, Degussa는 고속 촉매 스크리닝 기술 개발을 위해 2001년 Catalysis Project House를 설립했으며 3년 프로젝트로 총 2400만유로(2900만달러)를 투자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4/09/24>